

# 〈三代〉·〈太平天下〉의 幻滅構造

김동환

## I. 서론

염상섭의 〈三代〉와 채만식의 〈太平天下〉는 19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리얼리즘 논의에 힘입어 지속적인 관심 속에 꽂넓게 연구되어왔으며 그 성과는 다른 어느 작가, 작품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두 작품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염상섭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문예사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주로 초기에 속하는 논의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의 문학을 자연주의<sup>1)</sup>, 자연주의와 사실주의<sup>2)</sup>, 일본적 자연주의<sup>3)</sup>, 낭만주의<sup>4)</sup>, 사실주의<sup>5)</sup> 등의 다양한 경향으로 규정,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염상섭이 초기에 일본의 문학을 담습하다가 차츰 한국적 리얼리즘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sup>6)</sup>을 설명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염상섭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의 〈三代〉는 주

1)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68.

2)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56.

3) 김승현, “한국자연주의문학서설”, 현대문학, 1962. 7.

\_\_\_\_\_, “〈삼대〉에 나타난 외국문학의 영향”, 현대문학, 1963. 1.

김학동, “자연주의소설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1969.

4) 이어령, “이해와 모순의 여울목”, 사상계, 1973.

5) 김치수, “자연주의재고”, 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4.

6)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올유문화사, 1986.

\_\_\_\_\_,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로 당대의 시대적·사회적 조건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는데 신동욱<sup>7)</sup>, 김현<sup>8)</sup>, 유병석<sup>9)</sup> 등은 〈三代〉를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작가가 당대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김윤식<sup>10)</sup>은 티얼리즘 소설의 서사적 특성과 〈三代〉를 연결시키는 한편 그가 중산층의 보수주의적 세계관을 작품화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관점은 가족중심의 인간상<sup>11)</sup>, 동정자(sympathizer)의 인물유형 분석<sup>12)</sup>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호웅<sup>13)</sup>과 유문선<sup>14)</sup>은 〈三代〉를 식민지 시대 지주계급의 몰락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제선<sup>15)</sup>은 ‘가족사소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三代〉의 리얼리즘적 특성에 접근하고 있다. 이밖에 작품 기법과 문체론적 측면에서 집중하여 〈三代〉 등에 나타나는 작가의 객관적 시점, 만연체와 서울말씨 등이 주목하여 염상섭이 당대 사회를 객관적으로 재구한 역량있는 티얼리즘 작가임을 밝혀낸 연구 등이 있다.

채만식의 〈太平天下〉는 그 문체상의 특징때문에 우선 종자문학적 속성<sup>16)</sup>과 고전문학과의 연관성<sup>17)</sup>, 희곡과의 관계<sup>18)</sup> 등의 측면에서 연구되

7) 신동욱, “염상섭의 〈三代〉”, 김윤식 편, 염상섭, 문학과 지성사, 1987.

8) 김현, “식민지시대의 문학”, 문학과 지성, 1971. 가을호.

9) 유병석, 염상섭 전반기 소설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5.

10)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80.

11) 김승환, 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가족중심의 인간상, 서울대 석사논문, 1983.

12)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신영덕,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13) 정호웅, “식민지 중산층의 몰락과 새로운 방향성”, 신영덕 편, 염상섭문학 연구, 민음사, 1987.

14) 유문선, “식민지시대 대지주계급의 삶과 역사적 윤령”, 민족문학사연구, 광각과 비평사, 1991.

15) 이제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16) 강봉기, 채만식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3.

민현기, 채만식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7.

17) 신상철, “돌부의 현대적 수용과 변형”, 조선일보, 1983. 1. 9.

김성수, “이야기의 전통과 채만식 소설의 짜임새”, 문학연구, 경원문화사, 1984.

18) 차별석, “현실투시의 또다른 얼굴”, 문학사상, 1973. 12.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80.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홍성사, 1982.

었다. 연구자들은 〈太平天下〉가 고전문학의 풍자적 속성과 맞닿아 있으며 작가는 입담과 요설로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기법상의 특징은 오히려 당대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리얼리즘과 상반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현실인식이 투철한 리얼리스트의 입장에서 채만식을 본다면<sup>19)</sup> 〈太平天下〉는 상당한 한계를 지닌 작품이 된다. 작가의 개성적 측면이 현실과의 대응관계를 그리는 소설의 측면을 억압(현실을 냉소적으로 보는 작가의 기질)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데 채만식이 역사의 방향성을 잊어버린데서 도출되는 허무주의를 가리고자 이러한 오설풍의 작품을 염두하는 것이 그 요체이다. 이러한 판단은 서사양식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측면과 밀접하게 닿아있으므로 여기에서 상론할 부분은 아니거니와 이런 판단은 〈太平天下〉가 식민지 시대 지주계층의 불교와 물략을 형상화 한 리얼리즘 소설의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sup>20)</sup>을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三代〉와 〈太平天下〉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두 작품이 모두 식민지 시대의 현실을 그려낸 리얼리즘 소설이라는 대체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접근방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의 틀이 매우 광범위하거나 제한적인 관계로 작품의 의미망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은 현실의 재현이라는 측면을 넘어 당대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확보하여 형상화하는데에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三代〉와 〈太平天下〉가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환멸의 구조’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환멸의 구조(structure of Lost Illusion)’는 Lukács가 Balzac의 〈Lost Illusion〉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인물들이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좌절하게 되는 과정을 구조화한 개념이다.<sup>21)</sup> 이 개

김정희, “채만식의 전 회곡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3.

19) 이주형, 채만식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2.

송하준, 채만식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74.

우명미, 채만식론, 서울대 석사논문, 1977.

20) 한형구, 채만식의 세계관과 창작방법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21) G. Lukács, Studies in European Realism, New York, The Universal

넘은 루카치가 범주화한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판점에 따라서는 전망이나 인물유형보다 더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런데 ‘환멸의 구조’는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기에 그것의 방법론적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개념이 지니는 일반적 속성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소설들에서 인식해 낼 수 있는 특수성을 점보해 보는 일이다. 본고가 〈三代〉와 〈太平天下〉를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 작품이 카프 계열의 리얼리즘 소설과 달리 독특한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왕의 연구들은 이 독특한 의미구조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고 있지만 두 작품이 가지는 리얼리즘적 성격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작품이 취하고 있는 환멸 구조의 번역적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한다.

‘환멸의 구조’를 가진 작품에 접근해 갈 경우 그 핵심은 인들이 추구해가는 욕망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으며 환멸에 이르게 되는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내는 일이다. 루카치의 분석틀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궤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sup>22)</sup> 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이 그 의의를 획득하게 된다.

## Ⅱ. 근대와 반근대(半近代)의 대립구조와 환멸의 의미 : 〈三代〉

### 1. 근대와 반근대의 대립구조

〈三代〉의 인물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적 관계에 의한 범주화로 조의관 代, 조상훈 代, 조덕기 代로 나뉘어 진다. 이 범주는 그 자체로서는 작품의 구성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Library, 1972, pp. 47-64.

22) 루카치는 발자크가 〈Lost Illusion〉에서 작가 특유의 세계관 및 구성법을 통해 Lucien de Rubempre의 운명을 문학의 상용화, 자본주의화라는 과정과 밀착시켜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 세대가 지니는 시대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의미를 가지게 된다. 둘째는 욕망의 지향성에 의한 범주화로 조의관, 수원집 및 주변인물 群/조상훈, 김병화, 홍경애/조덕기, 이필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번째 범주가 분석의 대상이다.

먼저 조의관을 대표로 하는 인물군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철저히 현실유지형에 속한다. 조의관의 욕망은 현재의 가세와 권속이 그대로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대동보소를 만들고 선영을 개수하고 봉제사며 사당을 보존하는 일은 단순한 유교적 가치체계의 표상이 아닌 현재의 물적 토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이다. 식민지 시대 조선인 대지주들의 상당수가 몰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 현상 속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의관의 노력은 단순한 현실유지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조의관은 이러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집요하게 강조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무시하고 아들인 조상훈이 아닌 손자 조덕기에게 사당과 금고열쇠를 맡기게 된다. 현실적 욕망 앞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철저히 굴복하는 셈이다.

일상의 질서 속에서 조의관과 동렬에 속하는 수원집이나 그 주변인물인 조창훈, 김참봉 등도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같은 체계에 속하는 욕망의 소유자들이다. 조의관의 죽음을 앞두고 벌이는 수원집 주변인물들의 행위는 물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삶의 물신화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sup>23)</sup>

두번째 부류로 범주화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조상훈, 김병화, 홍경애 등의 의식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실변혁적이며 조의관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들과 근본적인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조상훈의 경우를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철저히 타락한 일상성 속에 함몰되어 있는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망의 체계로 보면 김병화 못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의 미래지향

23) 같은 세대에 속하는 지주사가 이들과는 달리 덕기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은 그에게 가족이 없으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본인의 진술들을 염두에 둘 때 ‘욕망의 부재’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적 유팡은 “제 삼재국”론으로 귀결되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그 요체를 발견할 수 있다.

「나도 너희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현실상 앞에 굳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 온 시대상과 너희의 시대상의 귀臬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 사상과 내 사상이 합치되는 소위 〈제 삼재국〉을 바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한 걸음 나아갔고 나는 그만큼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의 시대에서 또 한 걸음 다시 나아가면 그대에는 도리어 내 시대의 사상, 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필요하게 될지 아니?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찾는다」<sup>24)</sup>

여기에서 〈제 삼재국〉은 그의 종교적 행보와 관계되는데 조덕기는 자기 부친인 조상훈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봉진사회를 벗어나 새 시대를 지향하고자 하였으나 정치의 길이 막혔던 관계로 투신한’<sup>25)</sup> 데서 찾고 있다. 종교를 통해 새시대에 걸맞는 사상적 거점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정치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종교를 통한 사회변혁이란 필연적으로 한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조상훈의 유팡은 그 출발에서부터 좌절의 길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경애의 부친의 병을 계기로 홍경애 모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주상훈의 행위에 ‘결코 겉은 속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수삼 강조하고 있는 작가의 태도에서도 조상훈의 유팡의 편린이 드러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홍경애 와의 사이에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둑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조상훈의 좌절이 시작되는데 둑사람들의 시선이란 바로 그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사회건설의 방법론으로 선택한 종교가 가지는 한계였다.

김병화의 경우는 가장 명료한 유팡체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三代〉의 첫머리에서 홍경애가 일하는 주점 ‘바커스’의 주부의 입을 통해 ‘마르크스 보이’로 소개된<sup>26)</sup> 이후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그 성격이 명확해지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유팡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김병화의 유팡이 드러나는 방식이 주로 간접화의 형식을 띠고 있

24) 염상섭, 삼대, 삼성출판사, 1978 p. 37.

25) 앞의 책, pp. 36-37.

26) 앞의 책, p. 19.

음이 주목된다. 김병화가 자신의 사상적 경력, 현실관 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덕기와 주고 받는 편지<sup>27)</sup>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간접화는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작가의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작가는 김병화를 작품 중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로 대표되는 욕망의 체계를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위치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간접화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편지를 통해 드러나는 김병화의 사상적 지향성은 편지 내에서만 존재할 뿐 철저히 일상성 속에 매몰되어 있는 실제 생활에서는 그 모습을 찾기 힘들다.

홍경애는 작품의 초두에서 조상훈과의 관련하에서만 서술되는 대상일 때는 부친의 경력(독립운동가)과는 무관한 인물로 사회의 흐름에 순응하는 인물이었으나 조상훈에게 벼림을 받은 이후, 김병화와의 만남을 계기로 김병화와 생각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홍경애 자신이 사회주의 운동과 적극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진행과 함께 변화해간다. 외삼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괴혁이라는 인물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병화와 괴혁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부터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겸거를 전후로 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상훈, 김병화와 함께 미래지향적 욕망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조덕기와 필순은 앞의 두 부류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적극적으로 현실이 변혁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는다. 덕기와 조부와의 관계와 덕기와 병화와의 관계에는 동일한 거리가 개재되어 있다. 조부를 구시대의 완고한 답습자이며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간 세대라 보면서도 죽음에 앞서 후손을 생각하는 그 부성애에 감복하는 부분이라든지 김병화·홍경애를 자신과는 분명 다른

27) 〈三代〉에는 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김병화와 조덕기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중요한 뜻을 담당하고 있다. 필순이가 덕기의 생각을 알아내고 공감하게 되는 계기는 덕기의 편지를 흥쳐 본 데서 비롯되고 홍경애가 조상훈이 김의경과 사귀고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되는 것도 조상훈과 김의경 사이에 오가는 편지를 우연한 기회(김병화의 외투 사건)에 얻어 보게 된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우연성이 강하지만 전체적인 사건 전개의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장치로 볼 수만은 없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면서도 그의 주위를 떨구며 경제적 도움을 주는 행위는 그 좋은 예이다.<sup>28)</sup> 필순 역시 병화와 덕기의 관계를 통해 작품 속에 등장하지만 중반부 이후 덕기의 주변 관심의 대상이 되며 그 자신 부모와는 분명히 달라 그 어느 쪽에도 머리를 두고 있으며 덕기를 자신의 삶의 방향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삼대>의 유팔체계는 그 의식구조의 속성상 근대와 반근대, 중도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근대성을 지향하는 인물군은 조상훈, 김병화로 대표되는 인물들이다. 조상훈은 개화기 시대의 인물로서 당대의 감각으로 볼 때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sup>29)</sup> 특히 정치의 길이 막힌 상태에서 그 대체 가치로 종교를 선택했으며 그 자체가 ‘제삼제국’에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그의 의식구조는 곧바로 근대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조상훈이 보여주는 근대성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한계란 그가 추구하는 근대성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사실이다. 종교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정신작용으로 그 정신이 추구하는 바가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인 영역의 전형이다. 근대의 지식이 과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합리성을 그 모태로 하는 과학의 축면에서는 종교는 극복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개화기의 종교가 근대성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당대의 종교가 서양의 문명 곧 근대를 유입시킨 매체가 되었기 때문이

28) 병화가 덕기를 ‘모던 보이’라 소개하는 것은 바로 덕기의 이러한 속성을 잘 포착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29) 앞에서도 잠시 설명한 바 있지만 <三代>에서 조상훈은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그는 개화기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제사의 무의미성, 즉보의 한심한 등에 대해 나름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대의 서로운 이념의 첨단인 기독교인이 된다. 그는 개화기 초의 지식인들이 그리했듯이 독립운동자에 대해 사의를 표시 할 줄 알고 있으며 축첩, 노름의 피해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가 가장 중요한 축첩, 노름 속에 빠져 들어가 자신을 망치게 된다. 작가는 그를 통하여 소위 개화기 시대의 인텔리, 부호들의 기독교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의 기독교를 ‘새 것 컴플렉스’라는 축면에서 바라보는 김현의 입장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현, 앞의 글 참조.

다.<sup>30)</sup> 의식과 물질이 하나로 인식된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의 차원만이 의미를 갖게 된 경우가 조상훈이기에 그의 근대는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김병화의 경우는 ‘마르크스 보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마르크스주의를 근대성으로 파악할 수 있음은 이미 김윤식 교수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문제는 김병화가 이 마르크스주의에 임하는 태도이다. 실제 작품에서 김병화가 서사의 대상으로 놓이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마지막 부분의 겸거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뿐이다. 이전 단계에서 김병화는 철저히 일상성 속에 몰입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것도 덕기와의 편지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상성과 간접화는 곧바로 그가 작가에 의해 마르크스주의자의 한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상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는 그 본질을 획득할 수 없으며 ‘낭만성’의 부재의 한 원인이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조의관을 대표로 하는 인물군은 반근대(半近代)를 그 속성으로 한다. 여기서 반근대란 그가 추구하는 의식이 전통적인 가치에 얹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의 귀결점은 ‘돈’으로 대표되는 근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아들 조상훈을 배척하는 이유가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봉제사를 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이지만 실상 봉제사의 의미는 지금의 가세 즉 물질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과 다르지 않다. 물론 봉건사회에서도 물질의 의미는 여전히 유의미했지만 의식체계에서는 분명한 배척의 대상이었음이 일반적인 관례였음을 생각할 때 의식의 전면에 물질의 중요함과 그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 있음을 근대와의 접점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三代〉에 나타나는 이러한 욕망체계는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좌절의 상태, 즉 환멸의 구조를 취하는데 그 동인은 각 욕망의 대립구조에 있다. 이때 대립구조의 핵심은 조상훈에 놓여 있다. 조의관과 조상훈, 조상훈과 김병화, 흥경애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조의

30)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82.

관의 죽음, 김병화, 홍경애의 구속, 기타 가족의 구속등으로 이어진다. 조의관과 조상훈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조의관의 육당의 성취를 위한 불가결한 대립이며 조상훈과 김병화, 홍경애의 대립은 좌절될 수 밖에 없는 육당의 소유자인 조상훈의 행위에 대한 홍경애의 반발로부터 비롯된다. 김병화, 홍경애의 밀착, 홍경애와 피혁의 만남등의 근원은 조상훈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관계로부터 조의관, 수원집 주변, 홍경애, 조상훈, 김병화 등은 육당의 좌절을 겪게 된다. 조상훈이 대립의 핵심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조상훈의 의식의 문제가 그 속성상 근본적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조의관으로 대표되는 인물군과 김병화로 대표되는 인물들의 육당과 성격의 대개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에서의 환멸구조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 시대에 공존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각기 다양한 육당을 가지고 그 육당을 달성하기 위해 삶을 영위하지만 육당의 달성여부는 사회의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의 육당추구가 좌절이라는 형태로 남게될 때 그 요인은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와는 달리 〈三代〉의 경우는 그 좌절의 요인이 한 가족을 둘러싼 인물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물론 이때의 상호작용의 주체로서의 개인들이 당대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전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문제는 달라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환멸구조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조의관과 조덕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인물들은 그 요건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렇다고해서 〈三代〉의 무기가 축소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三代〉의 환멸구조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구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고의 입장은 그것을 이 작품의 환멸구조의 동인인 다양한 육당의 대립구조의 근원인 ‘돈’의 문제와 ‘낭만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 2. ‘돈’의 양가성과 ‘낭만성’ 결여를 통한 환멸의 의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三代〉에 나타나는 다양한 육당체계가 독자적으로 현실에 작용하지 못하고 대립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환멸의

구조가 단일한 귀결점을 보이게 보이게 되는 데에는 그 욕망들의 중심에 ‘돈’의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三代〉에서 ‘돈’은 양가성을 지니고 있다. 이 양가성은 욕망의 속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그 한 축은 조의관, 조덕기, 이필순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 축은 초기의 조상훈, 김병화, 홍경애로 이어진다. 전자의 경우에 ‘돈’은 다분히 하나의 목적 내지는 생활의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돈’을 목적으로 보는 대표적 인물인 조의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삶의 목표 자체가 ‘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덕기의 경우는 조의관처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삶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속한다. 덕기가 병화와의 대화나 편지를 통해 자신이 병화보다 현실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된데는 자신이 유산계급의 후손이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내세우는 것은 ‘돈’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병화가 가끔 자신으로부터 돈을 끌어갈 때마다 삶은 소리를 하지만 덕기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굴복해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에는 일종의 가진 자의 시혜의식이 다분히 개입되어 있으며 이 시혜의식이야말로 다양한 욕망들의 대립구조를 하나로 귀결시켜 나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초기의 조상훈, 김병화, 홍경애에게 있어서는 ‘돈’은 수단에 불과할 따름이다. 독립지사의 유족들을 보살펴 주는 일은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 종교인으로서 당연지사인 만큼 조상훈에게 있어 돈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더우기 그 돈이란 결국 부친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것을 얻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요구되지 않기에 쉽게 수단화 될 수 있다. 이 점은 김병화나 홍경애의 경우도 동일하다. 홍경애와 조상훈의 관계를 안 병화가 조상훈을 이용하기 위해, 즉 조상훈으로부터 자신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홍경애를 이용하여야겠다는 의도를 내보이는 부분<sup>31)</sup>이라든지 자신과 사상적으로 다른 덕기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서부터의 친구관계이기도 하지만 요긴한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

31) 염상섭, 앞의 책, p. 144.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전연 없지 않다고 실토를 하는 부분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괴혁으로부터 활동자금을 받아 가게를 시작하는 것도 ‘돈’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대의 사회구조는 후자의 인식이 철저히 전자 앞에 굴복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육당의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돈’은 돈의 속성상 일시적인 단계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지금 누가 돈 천원은 고사하고 돈 백원 주어보슈, 주의고 사상이고 가을 바람에 새털 이지！”<sup>32)</sup>라고 주장하는 홍경애의 말에 궁정도 부정도 아니하는 병화의 태도에서나 “의식주 앞에서는 어떤 운동도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sup>33)</sup>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덕기와 필순의 대화 등에서 이러한 역학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돈’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물들의 육망체계가 대립된 위치에 있는 육당의 체계에 의해 굴복하는 양상의 정점은 피질사건의 처리과정에 놓여 있다. 이미 자혜를 베풀 적이 있는 조덕기는 가진 자의 후손이라는 기득권과 돈의 위력을 빌려 점거된 사람들을 차례로 죽방시키는데 이 과정이 그에 해당한다. 다양한 육당의 대립구조의 과정과 결말이 ‘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앞 장에서 제기한 바 있는 〈三代〉의 환멸구조의 문제점의 한 해답이 되리라 본다.

또하나 이러한 축면과 관련시켜 주목되는 점은 덕기가 지니는 일종의 낭만성의 문제이다. 덕기는 병화나 홍경애의 활동을 보면서 장차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데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현실에만 얹매이기보다는 꿈이나 환상을 다소간 가지는 것도 필요하리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리얼리즘 일반과 밀접한 연관하에 논의되고 있는 낭만성<sup>34)</sup>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이 낭만성은 중도적 입장에 있는 덕기보다는 김병화를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병화 등의 지향점인 마르크스 주의는 작품전체를 통

32) 앞의 책, p.168.

33) 앞의 책, p.333.

34)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G. Lukács, 앞의 책, pp.67-72.

해 은밀히 드러나거나 추상적인 일상성 속에 매몰되어 있다가 편린을 드러내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화 등의 현실변혁에 대한 욕망은 종교적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확신에 차있다. ‘돈’의 문제로 덕기에게 늘상 신세를 지면서 의식적으로 덕기의 가치관을 부르죠아의 그것으로 치부하는 병화의 행위는 현실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는 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낭만성’을 결여한데 있다. 병화 등의 막연한 욕망으로는 확실한 토대와 미래를 향한 가시적 이상까지도 가지고 있는 덕기나 조의관의 욕망을 극복할 수 없다. 당장의 현실이 욕망을 참복시킨채 일상의 권태<sup>35)</sup>에 합몰되게끔 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에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인해주는 의식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의 발전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의 꿈, 광상을 지닌 강한 주관이 개입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 임화의 견해<sup>36)</sup>는 당대적 인식으로 주목을 요한다. 이 낭만성의 문제는 〈三代〉의 환멸구조의 성격을 밝히는데 유용하리라 판단되는 바 좀더 보충해 가고자 한다.

### III. 봉건. 근대적 制度의 상품화와 환멸구조의 회화화

#### 1.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제도의 상품화

〈三代〉와 달리 〈太平天下〉에서는 욕망이 단일화되어 나타나며 그 주체는 윤직원이다.

윤직원의 욕망은 손자 종학의 출세로 집약된다. 그의 욕망은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라는 선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철저히 체험적이다. 부친 윤용규가 조선 말기의 수령들과 화적폐에 토색질을 당하고 끝내 화적폐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윤직원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현재보다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적폐나 부랑당보다 강한 힘을 가진 보호망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유난히 현실감각이 뛰어난 윤직원이 그 보호망을 ‘제도’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

35) 작품의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김병화는 무위도식과 권태를 표상하고 있다.

36) 임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조선일보, 1934. 4. 20~25.

입장에서는 이미 그러한 제도에의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대리인을 내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그 대리인이 아들이 아닌 손자라는 데에 있다. 이점에서는 〈三代〉와 동일하지만 〈三代〉에서는 아들 조상훈이 명백하게 자신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 있기에 그 과정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太平天下〉에서는 아들 윤창식은 현실적 무능력자로 그려지고 있다.

가산이고 알림같은 것은 전혀 남의 일같이 불고하고 또 거두잡아서 제법 살림살이를 할 줄도 모릅니다. 부친 윤직원 영감의 말대로 하면 외인이 농판이요, 오십이 되도록 철이 들지를 않아서 세상일이 죽이 품는지 밥이 넘는지 통히 모르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미워서 꼬집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또 좋게 보자면 세상물욕을 초탈한 사량이라고 하겠지요.<sup>37)</sup>

부친 윤직원으로부터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윤창식에 대한 설명부분이다. 조상훈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부친과 대립할 의지도 없다. 윤창식의 이러한 성격화에 대한 이유는 작품 내에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다른 가족들의 상황을 놓고 유추해보건대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생각된다.

윤창식의 이러한 성격화는 윤직원의 욕망이 과도화하게 되는 계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직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친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위대한 투쟁선언'을 하고 그것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의아들인 창식이 자신의 뒤를 이어 줄 것을 기대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무망한 상태이다. 따라서 '제도'에의 진입을 꾀하는 윤직원의 욕망은 일종의 위기의식으로 인해 과도화하게 된다. 자손 중에서 그 중 낫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종학이 '금시로 경찰부장 뽐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그 과도화된 욕망의 핵심이다.

윤직원의 욕망을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제도'를 상품화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봉건제도의 한 순간인 양반의 지위를 돈으로 삼으며 군수자리도 적당히 돈을 쓰면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야 말로 윤직원의 욕망의 비현실성내지 과도성의 예이다. 한 시대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인 양반·상인의 구별이 무너지고 그것을 돈을 통해

37) 채만식, 〈평천하〉, 창작사, 1987 p.57.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그 제도가 더 이상의 존립근거를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직원이 양반의 지위를 샀지만 그 지위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이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되지 못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로의 진입을 피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역시 상품으로, 즉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그 욕망이 필연적으로 좌절할 운명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바라는 구체적인 제도가 그 제도 전체를 유지시키는데 핵심이 되는<sup>38)</sup>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이미 현실성을 잃은 과도한 욕망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과도한 욕망은 필연적으로 좌절을 초래하게 된다. 루카치는 졸라와 발자크 소설의 인물들을 비교하는 글<sup>39)</sup>에서, 발자크의 인물들은 좌절하되 졸라의 인물들처럼 궤멸로 끝나지 않는 것에 그 생명력이 있지만, 졸라의 인물처럼 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과도한 욕망에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루카치의 이러한 언급은 곧 욕망의 과도화가 환멸구조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그런데 〈三代〉에서와 마찬가지로 〈太平天下〉에서도 환멸의 구조는 여전히 다른 요소의 개입이 요구되는 미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결말부분에서 윤직원의 욕망은 자신의 욕망 달성의 대리인인 종학에 의해, 그리고 욕망의 대상인 제도(일제의 경찰)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결말부분에서는 윤직원의 실제적인 운명의 변화는 암시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종학의 꾀\_ticks 소식을 들은 윤직원의 행위를 곧바로 윤직원의 파멸 내지는 몰락으로 규정지었으나 이는 지나친 유추라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들은 〈太平天下〉와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회곡 〈당랑의 전설〉을 다분히 염두에 둔 것이라 판단되는

38) 식민지 지배체제에서는 관료, 경찰 체도 등의 상층부가 이에 해당한다. 윤직원이 첫째 손자를 군수감으로, 둘째 손자를 경찰부장감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은 두 적금 모두 당대 지배체제의 핵심에 놓여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막연한 권력에의 의지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자리에 대한 인식은 지식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경험이나 현실적 감각하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39) 루카치, 앞의 책, pp. 85-96.

데 같은 작가의 동일한 소재를 다른 작품이라 할지라도 극양식과 서사 양식의 양식상의 차이에서 오는 변별성을 간과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太平天下〉의 단일한 욕망체계와 미달형 환멸구조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풍부한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인공 윤직원 영감의 그로테스크 이미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 2. 그로테스크 이미지(grotesque image)의 **兩價性**과 **환멸구조의 희화화**

〈太平天下〉의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의 모습은 단순히 인간적 결함을 넘어선 기괴함을 갖고 있다. 이십팔관이 넘는 체중과 다섯자 아홉치의 키, 머느리와의 육설섞인 싸움, 비정상적 여성편력(술에미, 소작인의 딸들, 여학생 칩, 명색 숫처녀 칩, 과부, 열 다섯 살의 동기) 봄보신 방법(소변 보안법, 동변마시기)은 윤직원의 구두쇠 근성이니 악한성을 풍자하기 위한 삽화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윤리적 풍자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인 것이다. 이 디 작자는 윤직원의 돈버는 수단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씀으로써 근대 자본주의를 풍자해 놓고 있는 마당에 작품 인물들의 기괴한 모습, 행동은 자본주의의 수탈을 대변하는 윤직원의 전형성을 창조하는데 별 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작품에서 윤직원 영감은 단순한 부정적 인물만이 아닌, 수탈당하는 평민과 자본주의의 고리대금업자라는 이중적 가치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그의 아버지 윤용규는 농사, 돈놀이, 곱장리 등으로 착실히 돈을 모았으나 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화적의 약탈 및 수령의 토색질이라는 상반된 계층에 동시에 시달림을 받다가 결국 수령의 매질과 화적의 총부리에 죽고 만다. 아버지 윤용규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한 점의 풍자도 들어가지 않은 비극적 장면이다. 이런 인물의 이중성 제시는 그를 부정적 인물로 풍자할 수 없는 모호성을 띠게 하며 작품이 파탄에 이르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작품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 이미지가 그 빛을 발휘하게 된다. 〈太平天下〉는 판소리 화자가 나타나 판소리의 입담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판소리·탈춤 등의 민중 축제에서

보이는 그로테스크 이미지가 특징적이다.

중세의 민중문화는 기독교적인 공식문화에 반발하는 비공식적 문화이다. 이것은 상향성에 대한 하향성(degradation)으로 나타나는데 하향성은 하늘에 가까이 가려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반발로서 임신, 출생, 죽음 등에 해당한다. 즉 중세는 신체를 완성된 것으로 봄으로써 하늘에 가까워지려 하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에 반발하여 신체의 미완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신체의 하부를 과장,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향성과 관계되는 신체의 낫은 이미지는 중세의 정신적 세계와 대응됨과 동시에 재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하향에 해당하는 매장, 씨뿌리기, 신체의 배설기, 성기는 부정과 동시에 그 뿐만의 탄생, 생성이란 양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민중 축제에 나오는 희화화, 익살, 모욕, 불경스러움, 회극적 왕관 씌우기(comic crowning)는 이런 신체적 하향성과 맞닿아 있기에 부정이면서도 생성의 강렬한 욕구를 반영하게 된다. 상소리의 다양한 장르인 저주, 욕설, 대중적 언어도 생성을 위한 부정이기에 그 전강성을 획득한다.<sup>40)</sup>

마찬가지로 작품 속에 윤직원 영감에 대한 이중적 가치의 양가성은 이 그로테스크 이미지와 대응됨에 의해 모호성의 과탄을 면하고 다양한 의미를 창출시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윤직원 영감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작가가 그에게 제시한 부정과 긍정의 이중적 이미지가 내포하는 논리적 과탄을 웃음의 미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sup>41)</sup> 앞 장에서 〈太平天下〉의 환멸의 구조를 이와 연관시켜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이 그로테스크 이미지가 제시하는 속성에 의해 그의 욕망의 좌절과 그에 따른 결말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윤직원의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자신의 과대화된 욕망의 대리인인 종학의 꾀검사실을 알고 난 뒤 보여주는 행위가 역시 과장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40) M.M. Bakhtin, *Rabelais and His World*, The M.I.T. Press, 1968 p. 5.

41) 이에 대해서는 좋고, 「천하태평춘」의 판소리 문체 연구, 국어교육, 1991. 7 참조.

## IV. 결 론

이상에서 〈삼대〉와 〈태평천하〉를 환멸구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멸구조’라는 개념이 리얼리즘 소설 일반에 적용되는 개념이기에 두 작품에 나타나는 특수성 대지 변별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그러한 요소가 충분히 해명되지도 않았으며 논의 자체도 논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다분하다. 그 원인은 많은 연구사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에 서 있는 연구가 전무한데서 오는 어려움에 있다. 이 점은 앞으로 보완해 가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삼으면 다음과 같다.

〈삼대〉의 환멸구조는 다양한 육망체계가 존재하고 그 육망체계들이 대립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 대립의 양상은 근대와 반(牛) 근대로 설정된다. 그런데 근대로 성격 규정되는 육망체계는 반(牛) 근대로 표상되는 육망에 의해 좌절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동인은 ‘돈’의 문제와 ‘낭만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실변혁을 지향하는 근대성은 서사적으로 반근대 또는 그 중간자와의 관계에서 ‘돈’의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 환멸의 양상은 미달형으로 남는다. 이 원리는 ‘낭만성’의 문제에서도 적용되는바 마르크스 주의자가 아닌 중간적 존재에게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삼대〉의 또 다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태평천하〉의 경우는 그 육망이 단일하여 과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삼대〉와 구별되는데 육망이 과도화하게 된 요인은 ‘제도’를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윤직원의 가치관에 있다. 자신의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 돈으로 삼던 기존 제도는 이미 그 존재의의를 잃은 것이며 새로이 얻고자 하는 제도는 그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제도의 핵심부에 있다는 점에서 돈으로 획득불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윤직원의 육망은 필연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태평천하〉의 환멸구조가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그것이 희화화된다는 점인데 그 희화화의 본질은 윤직원 영감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에 있다.